

잘츠부르크 황희찬(왼쪽)이 6일(한국시간) 2019~2020 UCL 조별리그 E조 4차전 나폴리(이탈리아) 원정에서 세계적인 수비수 칼리두 쿨리발리의 마크를 피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나폴리(이탈리아) | AP뉴시스

## 쿨리발리까지 제압한 '영리한 황소' 황희찬

### 나폴리전 PK 유도…이강인도 '54분'

레바논과의 2022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원정(14일·베이루트), 브라질 평가전(19일·아부다비)으로 이어질 11월 A매치 시리즈를 앞두고 유럽무대를 누비는 태극전사들이 힘을 내고 있다.

'황소' 황희찬(23·잘츠부르크)과 '신성' 이강인(18·발렌시아CF)이 6일(한국시간) 열린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4차전에서 나란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황희찬은 나폴리와의 대회 조별리그 E조 원정 4차전에 풀타임을 소화하며 전반 10분 팀의 첫 골로 이어진 페널티킥(PK) 찬스를 유도했다. 상대 문전을 빠르게 돌파하려다 나폴리의 세계적인 수비수 칼리두 쿨리발리에게 거친 태클을 당했다. 앞선 UCL 리버풀 원정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명성을 떨치는 버질 판 다이크를 완벽하게 제쳐 득점포를 가동한 황희찬은 이날 쿨리발리가 예상한 방향을 완전히 속이는 완벽한 움직임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승수를 쌓지 못했다. 황희찬이 선물한 PK를 스트라이커 홀란드가 차 넣어 리드를 잡은 잘츠부르크는 전반 43분 이르빙 로사노에게 동점골을 헌납해 1-1로 아쉽게 비겼다.

폭풍 성장하고 있는 이강인도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안방에서 열린 릴과의 대회 조별리그 H조 홈 4차전에 오른쪽 날개로 출전했다. 생애 첫 UCL 선발. 앞서 이강인은 세 차례 UCL 경기에 나섰으나 모두 교체 투입이었다.

이강인은 번뜩이지 않았으나 무난했다. 공수 연결고리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전반 35분 헤딩 슛, 2분 뒤에도 상대 수비를 맞고 나오는 과감한 슛으로 홈 팬들의 갈채를 받았다. 전반 25분 선제골을 허용한 발렌시아는 후반 9분 이강인을 빼며 대반전에 성공했다. 이후 4골을 몰아치면서 역전했다.

중요한 A매치 2연전을 앞둔 국가대표팀 공격 콤비의 활약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에게도 큰 힘이다. 여러 포지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옵션이 최적의 몸 상태를 보여야 선수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특히 '캡틴'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이 처한 불편한 상황까지 맞물려 공격 2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남장현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FA컵 결승 1차전 수원 삼성-대전 코레일 0-0 무승부

# 숨막혔던 90분…'한방'은 없었다



대전 코레일과 수원 삼성이 6일 대전한밭운동장에서 열린 '2019 KEB하나은행 FA컵' 결승 1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우승을 향한 첫 길목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환하게 웃은 쪽은 없었다. 볼을 놓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 수원 최성근(왼쪽)과 코레일 조석재.
대전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1-3부 차이 없을 정도 팽팽한 접전**
**풀전력 동원 수원, 고질적 한방 부족**
**끈끈한 수비 코레일, 돌풍 위력 과시**
**10일 수원서 우승컵 놓고 단판승부**

프로·아마 추어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FA컵의 묘미는 반란이다.

K리그1 '왕년의 명가' 수원 삼성과 내셔널리그 대전 코레일이 묶인 '2019 KEB하나은행 FA컵' 결승전의 약자는 코레일이다. 절대 다수가 통산 4회(2002·2009·2010·2016년) 정상에 오른 수원의 우세를 점치면서도 코레일의 반란을 기대한다.

일단 6일 대전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결승 1차전은 0-0으로 끝났다. 원정 다득점 원칙상 코레일이 유리해졌다. 두 팀은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리턴매치를 갖는다.

울산 현대(32강)~강원FC(16강)~서울 이랜드(K리그2·8강)~상주 상무(4강)를 돌려세운 뒤 창단 첫 FA컵 결승에 오른 코레일의 모토는 분명하다. 김승희 감독은 "축제를 즐기자"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했다. 여러 모로 수원이 앞선다. 코레일은 이전까지 FA컵에서 20승(7무17패)을 챙긴 반면 포항 스틸러스와 공동 최다우승(4회)의 수원은 42승(19무12패)이다.

다만 상대전적은 예상을 뒤엎는다. 과거 코레일은 수원을 상대로 2전 전승을 했다. 한국철도 시절인 1999년 1회전 1-0, 2년 뒤 2회전에서 2-0으로 이겼다. 무실점 전승의 역사는 큰 자신감이다.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내셔널리그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내년 1~7부까지 '한국형 디비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대한축구협회의 방침에 따라 코레일은 3부 리그 격인 K3에 합류한다.

'실업팀' 타이틀을 달고 올 시즌 최후의 생존자로 기억될 코레일은 이미 위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울산현대미포조선(해체)이 내셔널리그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찍은 2005년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한 코레일은 14년 뒤 한 계단 더 올랐다.

경기는 원정 팀이 주도했다. K리그1 득점왕을 노리는 호주 골게터 타가트와 전세진, 국가대표 측면 수비수 홍철 등 풀 전력을 동원한 수원이 우세했다. 코레일은 전반 8분 김상균의 부상으로 이른 교체카드를 꺼냈다. 그래도 애절하게 싸웠다. '선 수비-후 역습' 전략의 코레일은 전반 42분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 이관표의 슛이 크로스바를 튕겼다.

후반 들어 수원이 승부수를 띄웠다. 아껴둔 염기훈을 투입했다. 앞선 K3리그 화성FC와의 4강 홈 2차전에서 해트트릭에 성공한 그는 올해 4골과 함께 역대 9골을 기록 중인 베테랑이다. 하지만 코레일의 투지도 만만치 않았다. 끈끈한 수비로 버티다 빠른 역습으로 상대를 괴롭혔다. 당황한 쪽은 수원이었다. 시즌 내내 아쉬웠던 마무리가 이번에도 되지 않았다. 수원은 쫓기게 됐고, 코레일은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대전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베트남 돌풍' 정해성 감독 "내년엔 우승컵 거머쥘 것"

**호치민시티 부임 1년만에 준우승**
**구단과 내년부터 '2+1년' 재계약**
**"내년 4개 대회 중 하나는 꼭 우승"**

2017년 10월 베트남으로 향한 정해성 감독(61)은 "도전!"을 외쳤다.

"축구는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다 똑 같다"며 의욕을 불태운 그는 처음 1년간 호앙아인잘라이(HAGL)의 기술위원장 겸 총감독을 맡았다가 지난해 말 호치민시티FC 사령탑에 올랐다.

호치민에서 정 감독의 지도력은 빛이 났다. 2017~2018년 연속으로 베트남프로축구 V리그 14팀 중 12위의 하위권에 머물던 팀을 올 시즌 단박에 2위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엄청난 돌풍 덕분에 준우승을 하고도 'V리그 올해의 감독'에 선정됐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 '2+1년' 재계약을 맺었다.

스포츠동아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 감독은 "선수와 스태프, 구단 모두 하나가 되어 2019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

**-올 시즌 호치민시티 성과의 원동력은.**

"팀에 늦게 합류하면서 선수 구성이 95% 정리가 된 상황에서 시작했다. 우선 구단을 비롯해 선수, 스태프 모두 하나가 된 '원 팀'을 강조하면서 프로다운 팀을 만들자는데 의기투합했다. 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내 줘 고맙게 생각한다. 생활과 훈련도 하나하나 진정한 프로답게 변해갔다."

**-호치민시티와 재계약을 했는데.**

"시즌 종료 전에 회장님께서 구두로 '걱정하지 말고 3년은 같이 했으면 한다'고 언질을 하셨는데, 시즌을 마치고 마무리가 됐다. 내년에는 더 힘든 시즌을 하게 되는 상황에 선수보강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렸다. 구단 사정이 어려워 쉽지 않다는 답을 들어 잠시 고민했다. 그 사이 V리그 몇몇 팀에서 제의를 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우선은 호치민'이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시즌을 마치고 서로 양보하면서 구단과 계약에 합의했다."

**-호치민시티 구단의 특색이 있다면.**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은 대도시이자 라이벌로서 V리그 흥행을 주도할 수 있는 팀이지만 지금까지 호치민이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해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올 시즌도 1무1패로 열세였다. 하지만 호치민 팬들을 충분히 흥분시킬 만큼의 결과와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올 시즌 V리그 우승팀은 하노이다. 당연히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가진다. 하지만 하노이는 15세 이하 유스 대회 출전 등 AFC 클럽 등록 규정 위반으로 출전권이 박탈됐다. 이에 2위 호치민시티가 출전권을 넘겨받았다. 정 감독은 "쉽지는 않겠지만 베트남의 클럽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베트남이나 동남아국가로 진출을 꿈꾸는 지도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디든 새로운 국가에서 도전을 하려면 쉽지 않다. 지도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정서도 잘 파악해 선수들과 소통을 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수와 스태프 모두 서로 존중하는 것도 꼭 필요한 요소다."

**-내년 시즌 목표가 있다면.**

"내년 시즌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V리그와 ACL, 내셔날컵, 클럽챔피언십 등 4개 대회를 소화해야한다.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클 것에 대비해 선수보강에 신경을 쓸 것이다. 4개 대회 중 하나는 우승컵을 거머쥐고 싶다."



베트남 프로축구 V리그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된 정해성 호치민시티 감독은 6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선수와 스태프, 구단 모두 하나가 되어 2019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정해성 감독

정 감독은 조만간 스페인으로 건너가 경기 관전을 겸한 휴식을 취한 뒤 12월 초 훈련을 시작한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